

연중 제13주일,
교황 주일

대구주보

ARCHDIOCESE OF DAEGU WEEKLY BULLETIN

2026.06 28

[가해] 제2543호

2025~2026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마태 10,39)

오늘의 전례

입당송 모든 민족들이, 손뼉을 쳐라.
기쁨 소리치며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제1독서 2열왕 4,8-11.14-16L

화답송

◎ 주님의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
리다.

○ 주님의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
리다. 제 입은 당신의 진실을 대대로
전하오리다. 제가 아뢰나이다. “주님
은 자애를 영원히 세우시고, 진실을
하늘에 굳히셨나이다.” ◎

○ 행복하여라, 축제의 기쁨을 아는
백성! 주님, 그들은 당신 얼굴 그 빛
속을 견나이다. 그들은 날마다 당신
이름으로 기뻐하고, 당신 정의로 힘
차게 일어서나이다. ◎

○ 정녕 당신은 그들 힘의 영광, 당신
호의로 저희 뿔을 들어 올리시나이다.
저희 방패는 주님의 것, 저희 임금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것이옵
니다. ◎

제2독서 로마 6,3-4.8-11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너희는 선택된 겨레고 임금의 사제
단이며 거룩한 민족이니 너희를 어둠
에서 불러내시어 당신의 놀라운 빛
속으로 이끌어 주신 주님의 위업을
선포하여라. ◎ 알렐루야.

복음 마태 10,37-42

영성체송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
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 WYD 십자가와 성모 성화,
김천소년교도소 순례(6.19.)



소리주보
QR코드

† 평화의 모후,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일의 강론



들꽃마을 원장 | 손현기(모세) 신부

깨끗함의 십자가지기

오늘은 교황 주일이다. 교황님은 복음의 수호자로서 교회의 중심이다. 최근 레오 14세 교황님의 말씀이 종종 화제가 되는 일들이 있었다. “전쟁을 벌이는 이들의 기도는 거부당할 것이다.” 이민자들 추방에 대해서는 “그들은 극도로 무례한 대우를 받고 있다. 우리는 사람을 인간답게 대하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 교황님은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이런 단호함이 세상에는 대립으로 비치고 언론은 권력 대 권력을 이야기하지만 교황님은 “모든 이들이 평화와 화해의 방법을 찾고 전쟁을 피할 길을 모색하도록 하는 일을 절대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셨다. 교황님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각자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복음의 길을 명확히 해 주고 있다.

오늘 복음과 관련해서 이번에 교황님의 말씀 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말씀이 하나 있다.

교황님은 사람들이 가진 “전능에 대한 망상”을 비판하셨다. 인간의 전능에 대한 망상은 일찍이 바벨탑 사건에서도 있었다.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을 모두 흩어버리셨다. 인간이 망상으로 하는 일, 교만으로 하는 일은 하느님에 의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임을 알려주는 이야기다.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은 어떤 양상으로 되어가고 있는가?

오늘 복음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신다. 십자가 없는 곳에는 하느님의 영광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십자가와 하느님의 영광이 합쳐지는 것, 이것이 하느님의 전능이다.

다 밝힐 수 없는 이야기지만 얼마 전에 선배 신부님께서 부끄러운 깨끗함(?)을 보았다. 선배 신부님에게는 부끄러움이었지만 나는 거기에서 부끄러움이 아니라 깨끗함을 보았다. 그 깨끗함은 다른 이를 씻어주기도 한다. 하느님께서서는 내가 솔직하면 부끄러움을 통해서도 일하신다. **대국 주일**

| 말씀 KEY WORD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ὁ εὐρών τὴν ψυχὴν αὐτοῦ)” (마태 10,39)

마태오 복음이 말하는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을 당시의 관용적 의미에 비추어 이해하자면 이렇습니다. 곧 “인생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 “삶을 자기 방식대로 꾸려나가려는 사람”을 가리키지요. 오늘 복음에서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고자 하는 모든 행위는 삶의 방식과 그 근거를 예수님께 두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제 삶의 성공과 행복을 주님 안에서 찾습니다. 여기서 성서학자 윌리엄 A. 비어즐리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역설을 발견합니다. 이를테면,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지키고자 하면서도, 다른 한편 자신을 넘어서는 사랑과 진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어야 하는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인간적 욕망과 주님을 향한 열정 사이의 역설이 한 사람의 내면 안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불러 일으킵니다.(로마 7,22-23 참조) 다만 우리는 신앙의 경험으로 압니다. 나를 살린 것은 끝까지 붙들었던 내가 아니라, 마침내 내려놓을 수 있었던 나였고, 그 비워냄 속에서 만난 주님이었다는 것을요.

WYD 십자가와 성모 성화, 소년수와 이주민 공동체에 희망 전해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준비하며 전국 교구를 순례 중인 WYD 십자가와 성모 성화가 6월 19일 김천소년교도소와 21일 이주민공동체를 방문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WYD 십자가와 성모 성화는 세계청년대회의 공식 상징물로, 젊은이들이 하느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신앙 안에서 일치와 연대를 체험하도록 이끄는 영적 순례의 표징이다. 지난해 11월 바티칸에서 열린 전달식을 통해 한국에 도착한 상징물은 현재 전국 15개 교구를 순례하며 교회와 사회 곳곳에 복음의 희망을 전하고 있다.

6월 19일(금) 오전 10시 김천소년교도소에서는 교구장 조환길 타대 오 대구교 주례로 미사가 봉헌됐다. 조 대구교는 강론에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 “예수 성심 성월을 지내며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에 자신을 맡겨드리자.”라고 당부했다. 미사 끝에는 소년수들이 오카리나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연주하며 감동을 선사했다.



이어 21일(일) 오후 1시 대안성당에 도착한 WYD 십자가와 성모 성화는 이주민공동체의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베트남, 필리핀, 동티모르 출신 이주민들은 전통 의상을 입고 노래와 기도로 상징물을 맞이했으며, 가톨릭근로자회관 관장 이관홍 바오로 신부의 주례로 맞이 예식이 거행됐다. 이후 2시와 4시에 필리핀공동체와 베트남공동체 미사가 차례로 봉헌됐다. 특히 베트남공동체는 ‘타국 땅에서, 저희는 혼자 걷지 않습니다’를 주제로 기도와 나눔의 시간을 마련해 WYD 십자가와 성모 성화가 전하는 연대와 희망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날 순례는 소년수와 이주민 등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이들과 함께하며, 복음의 기쁨과 하느님의 사랑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D-396



1. WYD 십자가와 성모성화 순례 일정

날짜	시간	장소	기타
28일(주일)	16:00	범어성당	2대리구 파견식
29일(월)	19:30	동촌성당	-
30일(화)	19:30	대신학원 대강당	순례 마무리 토크 콘서트(백윤학 교수, 오찬호 박사) 콘서트 후 성모당으로 옮겨 모심
7월 1일(수)	11:00	성모당	환송 미사(교구장 대주교님 주례)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대구관구로 이동

※ QR 코드로 ‘WYD 십자가와 성모성화 대구대교구 순례’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2. 홈스테이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6월 30일(화) 1차 신청 마감

※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와 젊은이들을 위한 목주기도 봉헌 운동 **32,823,956** 단 (2026. 6. 21. 기준)

7년의 기적, 허원의 완성!

백년 성지 성모당(2)

교구 문화홍보국 장성영 안드레아

드망즈 주교는 높이 2m에 이르는 루르드 성모상을 프랑스에 미리 주문했습니다. 성모상은 1918년 3월 28일 프랑스 마르세유항을 출발해 일본 고베를 거쳐 조선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성모상에 대한 소식이 없었습니다. 성모당은 이미 완공되었지만 정작 모셔야 할 성모상이 도착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어쩔수 없이 드망즈 주교는 성모 승천 대축일인 8월 15일, 신학교에 있던 높이 120cm의 루르드 성모상을 임시로 모셨습니다. 하지만 넓은 성모당에 모셔두기에는 성모상이 너무나 작았습니다.

9월 말, 기다림 끝에 드디어 성모상이 부산항에 도착했고 무세 신부가 10월 1일 대구로 성모상을 소중히 모시고 왔습니다. 그런데 포장을 뜯어본 드망즈 주교는 참담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험난한 항해 속에서 허술했던 포장 탓에 성모상이 무려 80여 조각으로 산산조각이 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성모님의 얼굴과 손은 손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복원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이튿날 10월 2일, 중국인 기술자들이 온종일 매달려 부서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 붙이고 시멘트로 틈을 메워 정교하게 수선하였습니다. 10월 5일까지 정성스럽게 덧칠하여 마침내 어떤 틈 자국도 남지 않은 온전한 성모상을 복원해 냈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기적 같은 과정을 거쳐, 1918년 10월 13일 주일, 대구대목구의 모든 신자가 한마음이 되어 축하하는 가운데 장엄한 성모당 낙성과 축복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드망즈 주교가 7년 전 눈물로 약속했던 대로, 대구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자리에 프랑스 루르드의 마사비엘 동굴을 꼭 닮은 거룩한 성소 동굴이 온전히 봉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날 드망즈 주교는 1911년 대구대목구장으로 부임한 뒤 7년 동안 성모님께 맡겼던 허원이 모두 성취되었음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축성식 이후 교구의 모든 본당과 공소에 성모당 순례를 권고하는 사목교서를 내렸고, 신자들은 감사와 청원을 안고 남산동 언덕을 찾았습니다.

한 세기가 넘는 시간이 흐른 오늘날까지도 성모당은 천주교 대구대교구의 영적 심장이자 성스러운 상징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교구가 가장 어려웠던 시절,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았던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성모님을 향한 신뢰 하나로 희망을 놓지 않았던 드망즈 주교와 신앙 선조들의 거룩한 허원은, 오늘도 성모당의 붉은 벽돌마다 깊이 새겨져 전국에서 찾아오는 순례자들을 따스하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빛남**

민음의 길

드망즈 주교의 일기 (1919년)

달힌 공장, 갇힌 처녀들

2월 10일(월)

온종일 신학교에서 시험이 치러졌다. 내일은 루르드의 성모침례여서 시험이 중단될 것이다. 그에게 대구의 큰 생산공장에서 전날 고용된 밀양(密陽) 출신의 한 교우 처녀가 술책을 써서 간수들을 속이고 도망칠 수 있었다. 그녀는 지금 수녀원의 문지기인 세실리아의 집에 있다. 이 공장에서는 일본인과 한국인들이 순회하기 위해 처녀들의 방에서 밤을 보내고, 그녀들을 위층으로 데려가는데, 그녀들 중 대다수가 어머니가 되었다고 한다. 작년에 원장 수녀가 이 시설을 방문했을 때 그 많은 처녀들이 수녀의 옷에 매달려 자기들을 데려가 달라고 애원했었다. 그녀들은 한 번 들어가면 거기에서 거의 나올 수가 없다. 그것은 노예 상태이며 무료 매춘이고 징역이다. 그런데도 공장 사람들은 마을들을 돌아다니며 주민들을 모아 특히 이 공장에서는 남녀가 분리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이 공장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다.

2월 13일(목)

어제 하루 종일 계속된 시험이 오늘 아침 11시 30분에 끝나고, 성적 심사가 오후 2시 30분에 실시되었다. 두 학생이 불충분한 성적 때문에 제적되었다.

2월 14일(금)

줄리앙과 김 아오스딩(金承淵) 신부가 3일간의 휴가를 지내러 떠났다. 줄리앙 신부는 부산진(釜山鎭)으로 가고 김 신부는 소촌(召村)으로 간다. 오늘 받은 프랑스에서 온 많은 편지들 중에 빌렘(Wilhelm, 洪錫九) 신부의 편지 두 통이 있었다. 52개월 만에 로렌(Lorraine)에서 해방되어 편지를 쓸 수 있게 된 그는 한국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다.

2월 16일(일)

나는 대성당에서 평소대로 미사를 드리고 부산행 특급을 탔다. 부산에 가보니 페셀 신부가 라크루 신부의 옛 복사 때문에 몹시 귀찮아하고 있었다. 그 복사를 쫓아내고 싶어 하던 라크루 신부가 있을 수 없는 보다 나은 물질적인 상황을 제시하며 그를 페셀 신부에게 보낸 것이다. 이 착한 사람은 그의 아내와 아이들 넷과 함께 페셀 신부의 비용으로 쓸데없는 여행을 하고, 직장을 잃고 오늘 밤에 떠난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는 '성장'입니다.



청년 사목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적극 협력하기

신앙 교육 프로그램에
청년들이 참여하도록 독려하기

청년들의 리더십 개발을 위한
기회 제공하기

2026년 한 해 동안 교구 평신도위원회에서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월간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영상은 교구 유튜브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주간 교구 일정

선종 사제	미사 안내	교구 행사
6 28(일)		학생 주보기자단 월모임, 11:00 교구청 본관 중강의실 1기 더 파파스 4주차, 14:00 교구청
29(월)	2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1:00 범여성당	한일탈핵평화순례, 7/2일까지 성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30(화)	구미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10:00 형곡성당	
7 01(수)		WYD 십자가와 성모성화 환송미사, 11:00 성모당 59기 성모마리아 어머니학교 4주차, 19:00 주교좌 범어대성당
02(목)	김동연 베드로 신부 (1981년 7월 2일 선종)	파스카 청년성서모임 제234차 창세기 연수, 5일까지 꾸르실료교육관 故 원동수(바로) 신부 1주기 유작전, 16일까지 교구청 본관 로비
03(금)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성지순례, 09:00 수리치골 성모성지
04(토)	이종필 마티아 신부 (1954년 7월 4일 선종) 김영옥 요한 신부 (1996년 7월 4일 선종)	1대리구 4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10:00 태전성당 1기 더 파파스 5주차, 5일까지 한티 피정의 집



2026년 6월 28일 교황주일

오늘은
교황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황님의 사목 활동을
돕고자 특별헌금을
하는 날입니다.



故 원동수 신부 1주기 유작전

일 시 2026. 7. 2.(목)~16.(목)
오픈식 7. 2.(목) 11:40
장 소 교구청 본관 로비층
문 의 교구 여성위원회, 254-6115

※ 수익금은 생명사랑 미혼모 돕기 후원금에 기부합니다.



2027 서울 WYD 상징물 순례 토크콘서트

“희망의 길, 함께 걷는 젊음”

6월 한 달간 진행된 WYD 십자가와 성모 성화의 대구대교구 순례를 마무리합니다. 청년들과 함께 걷는 희망의 여정에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26. 6. 30.(화) 19:30 대신학원 강당

초대 손님: 백윤학 지휘자(영남대 음악학부 교수), 오찬호 요셉(사회학자)

■ 농민 주일 특강, “기후위기 시대, 토종씨앗의 중요성”

일시 7. 15.(수) 10:30~12:30

장소 교구청 대강의실

강사 변현단 가타리나 (사)토종씨드림 대표

대상 토종씨앗에 관심있는 분

회비 1만원

신청 7. 10.(금)까지 QR 코드로 신청

문의 교구 생태환경 및 농어민 사무부, 250-3072~3



■ 수도권 | 피정 알림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성소 피정

일반부(35세 이하 남성)

: 7.30~8.2(3박 4일)

중고등부: 8.4~6(2박 3일) 캠프로 진행

장소: 경남 산청 성심원

문의: (010)6608-3217

2026 살레시오 여름 성소 캠프

8.1(토)~2(일): 고3~35세 이하 미혼 남성

장소: 대림동 살레시오 수도원

8.15(토)~16(일): 중1~고2 남학생

장소: 대전 살레시오 교육사목센터

마감: 7.31(금) / 문의: (010)6221-3520

효령하늘집 "나도 가보자~"

침묵과 관상의 개인 피정

면담과 치유 / 소그룹 피정(Pr)

미사: 주일 11:00,

수요 치유미사 16:00

문의: (054)382-0091

■ 시설 | 기관 | 단체 알림

고령성가의집(양로원) 어르신 모집

장소: 경북 고령군 쌍림면 월막길 108

내용: 1인 1실 사용 / 공동기도 생활

대상: 65세 이상 일상생활 가능한

기초수급자 어르신

문의: (054)954-1824

대구성령쇄신봉사회 737차 성령 묵상회

기간: 7.10(금) 12:30~12(일) 18:00

장소: 월막피정의집(성령회관대성전)

차량: 설화명곡역 2번 출구 11:30

신청비: 14만원 (교재비 별도)

문의: (054)954-0951 / (010)8996-8037

성지안내 봉사를 위한 천주교회사 강의

기간: 9.2~11.25(매주 수) 19:30~21:20

장소: 가톨릭신학교 강의동

2층 8강의실

강사: 김정희 바오로 신부 / 8만원

문의: 성지안내봉사회, (010)9255-4615

■ 일반 | 기타 알림

성바로청소년의집

생활지도원 채용

인원: 사회복지사(생활지도원) 2명

모집: 채용 시까지

문의: 사무국장, (054)382-2834

홈페이지: spyouth.or.kr 참조

대구대교구 파티마의세계사도직

첫토요일 성모 신심 미사

일시: 7.4(토) 10:00 썰기도, 11:00 미사

장소: 성모당

미사 집전: 이연춘 마르첼리노 신부

문의: (010)8586-1679

청소년행복학교 교육생 모집(인성교육)

참행복의 개념형성과 행복지수 향상

개강: 7.11(토) / 총 7회 / 대상: 중고생

매주 토 10:30~12:30 / 교육비: 15만원

장소: 샬트르성바로수녀회 대명동

문의: 하로사수녀, (010)3801-3416

수녀원에서 보내는 여름휴가 『staycation』

기간: 7.17~19 / 7.21~23 / 7.24~26

장소: 강원도 속초

(선한목자예수수녀회)

대상: 35세 이하 미혼 여성

신청: (010)4882-9674

부산교구 성령쇄신봉사회 묵상회 안내

518차 부산교구 성령묵상회(일반)

: 7.17(금) 18:00~19(일) 17:00

519차 부산교구 성령묵상회(청소년)

: 7.24(금) 16:00~26(일) 17:00

장소: 양산영성의집, (055)382-9465

26년 꽃동네 젊은이 하계 피정 『머무름』

기간: 7.18(토) 11:00~19(일) 16:00

장소: 음성꽃동네 사랑의영성원 / 5만원

대상: 고 2학년~만 39세 젊은이

문의: 자매회, (010)9894-1973 /

형제회, (010)5571-2516

그리스도의레지오수도회

성지순례 모집

7월: 캐나다 성모성지 (9박 10일)

11월: 멕시코&칸쿤 성모성지

(10박 11일)

문의: (010)5735-4578

교구 | 대리구 알림

7월 기도와 치유미사

일시: 7.3(금) 19:30

장소: 신청 후 개별 안내

대상: 가족 구성원을 사별한 천주교 신자

진행: 연도 후 미사 봉헌(고해성사 가능)

신청(필수): 가정복음화국, (010)9461-3077

월간 <빛> 구독 신청 안내

월간 <빛>은 대구대교구가 발행하는 신자 가정을 위한 월간지입니다.

연간 구독료: 개인 3만원(우편료 포함)

본당 2만4천원

문의: 총무부, 250-3158

교구 법원 공시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성수식(베드로), 장범규

문의: 교구 법원, 253-9550

영천성당 묘원 봉안담(영원한천국)

분양 안내

장소: 영천시 금호읍 원제리 74-3

구분: 부부단, 개인단

문의: (054)338-3381

시설 | 기관 알림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안내

서양화, 발성법, 가야금 성가, 합창교실,

성인 모래놀이치료, 제대꽃꽂이, 피아노,

캘리그래피, 캘리엔그림, 현대미술산책,

성가반주 오르간, 가곡과 성가, 유화,

사범자격과정 꽃꽂이 / 신청: 254-6115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질병의 조기 발견과 다양한 검진을 통해 건강한 삶을 지키십시오

일반검진, 암 검진(암 검진은 예약 필수)

문의: 650-4591 (8:00~17:00)

전인병원 - 세포재생 증식센터

고관절·골반인대 강화

질병으로 인한 신체 부위 보강

요통·회전근개염 등 통증완화

신체기능 재생 및 개선

문의: 1688-7667 (9:00~17:30)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8.24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565만원

9.2 발칸반도 (11일) 535만원

10.16 이탈리아 (11일) 545만원

문의: 428-5004 / www.cttour.org

cpbc 대구가톨릭평화방송 (FM 93.1MHz) **오늘의 강론** 6월 29일(월) ~ 7월 4일(토) 6:50, 16:50, 23:50 최규민(사도요한) 신부

“하지정맥류만을 위한”
이연재 맥 의원
원장: 이 연 재(맥) 흉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방향 200m

백두병원
대구, 경북 최초 스트라이커사 마코 무릎인공관절수술 로봇수술 어깨 보존치료우선 관절경수술 척추 양방향 내시경술
대구 달서구 월배로 18, 053-425-5919
정형외과 전문의 배억두(아오스딩)

강좌 모 집
가곡·성가반·솔티중창반
발성법 1:1 수업 (화,수,목)
문의 010-2401-3792
제대꽃꽂이반] 금·토 10~15시
사범자격증반
문의 010-3802-2107
위치: 신학대학교 정문 맞은편

파 크 골 프
골프채 - 최대 50% 수입채 레슨가능
신일선통기 에어서클 소형가전
소금염착용기 게르마늄옥매트
(주)매일프라자
김요셉 010-9804-8008
유동단지로 45 전자관 동문 1-240호

도안김연내과
주·야간 혈액투석 만성질환 국가 검진 위대장내시경
원장 도원석(베드로) 김아림(안나)
대구 서구 팔달로 152, 4층 지하주차장완비 3호선 팔달시장역, 팔달신시장 맞은편
외래검진 053)357-7400 신장실 053)357-7500

건설기초안전교육
<교육시간> 4시간 교육 후 이수증 즉시발급
월~금 오전9시~오후1시, 오후2시~오후6시
토/일 오전9시~오후1시 **매일교육 실시**
취약계층 무료교육지원정책 수행
대구시 중구 명덕로 203 우석빌딩2층 1호선, 3호선 명덕역 앞 대표 김경태 바오로
대구 경북 교육장 053-218-7000

개원 41년
달성 피부과
●아토피·여드름·피부재활 전문케어
●보톡스·실리프팅 ●면역강화 수핵요법
원장 손재경(다미아노)·김민주(레지나)
DALSUNG
053)566-4333, 2호선 두류역 3번출구

VIP 여성 통합암센터
성모한방병원
365일진료 | 평일21시까지야간진료
1인실 스위트룸 탕파침대 | 24시간 전문의 상주
고주파 온열치료 BSD-2000
아이백스 초대형 다인용 고압산소헬머
병원장/한의학박사 김성철(비오)
교산역 2번출구 알파시티입구 T. 1588-3386

강한 속내과유외과의원 건강검진센터
위/대장 내시경 | 유방/갑상선/복부 초음파
성인병(고혈압, 당뇨, 고지혈 등)
내과 전문의 김민근(라파엘) | 외과 전문의 김민수(라파엘라)
대구 서구 국제보성로 223 대원빌딩 3층 T. 565-7585

목,허리,어깨,무릎 통증치료전문
서울에이스통증의학과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 치료 전문 (최신 체외충격파 치료기 도입)
목 / 허리 통증 / 오십견 / 무릎관절염 / 스포츠 손상
원장 권 일 치 (안드레아)
진료과목: 통증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동구 야영로 46 [신암동214-4] 2층 Tel 053 954 7582

장윤제연합치과
뉴욕대학교 임플란트과 임상교수 역임
원장 장윤제(바르나바)
대구은행 본점 맞은 편
T. (053)752-9797

박영우 정신건강의학과
우울증/불안증/불면증 스트레스성 신체질환
원장 박영우(스테파노) 파티마병원 신경정신과 과장 역임
신경정신과 전문의/의학박사 대한수면학회 회장/이사장 역임
대한생물치료정신의학회 회장 역임
파티마병원-평화시장 사이 (공전라번대 맞은편)
☎ 053)942-8822

NAVER 동고동락 결혼
1:1 맞춤관리 매칭 시스템 운영
대구 도시철도 1호선 교대역 4번 출구 바로 앞
임영희 (소피아) 010-4535-0100

진심을 담아 진료합니다
진심내과 의원
의학박사 손지현(아네스)
심장검진 | 심장초음파
대구시 중구 달구벌대로 1999 (동산동) 천마병원 3층 청라연역(신남)역 9번출구 진료문의 053-422-3334

대구안과의원
조영수 (다미아노) · 윤경철
홍정훈 (대건 안드레아) · 정성중
서부정류장 역 관문시장 옆
☎ 053-651-2233

대구연세안과
실크스마일
레이저 백내장 수술
대표원장 박종원(소시모)
의학박사(현 연세대 외과교수)
문의전화 626-8881~5